

입력: 2012-04-12 16:07:51 / 수정: 2012-04-12 16:10:46

[울산·포항]

## 포스텍, 첨단 신소재 개발 기여한 교수 3명 석좌교수로 추대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은 12일 신소재공학과 박찬경(59)교수를 세아석좌교수로, 같은과 한세광 교수(43)와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44)는 세아 젊은 석좌교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박찬경 교수는 국내 최고수준의 전자현미경 분석가로 철강 연구, 금속 세라믹 코팅, 나노공학 분야 등에서 국내 첨단 신소재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형준 교수는 홍합유래 하이브리드 바이오접착 소재 실용화 기반을 마련했고, 의료용 생체접착 소재의 상용화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세광 교수는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신약 개발 등 나노의약품 생체재료 개발을 통해 바이오, 의료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세아석좌교수의 임기는 올해부터 3년간이며, 세아석좌교수는 9000만원을, 세아젊은석좌교수는 각 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아석좌교수는 세아제강(회장 이운형)이 국내 재료금속분야 학문 발전과 산업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포스텍에 출연한 15억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학교내 재료금속분야의 저명학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mailto:hais@hankyung.com)